

AUTHOR 김균진

TITLE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교회관

IN 현대와 신학

20집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5):
66-87.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교회관

김 균 진*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카리스마적 공동체 |
| II. 카톨릭 교회의 교회관 | V.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
| III. 개신교의 교회관 | VI. “형제 자매의 공동체” “친구들 |
| IV. 신약성서에 있어서 공동체의 질서 | 의 공동체” |

I. 문제 제기

교회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답변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의 각도에서 답변될 수도 있고, 교회의 표징의 각도에서 답변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은 교회 자체내의 기능과 대 사회적 기능의 각도에서 답변될 수도 있으며, 교회 제도의 각도에서 답변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본질의 각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었다. 물론 제2바티칸 공회에서 카톨릭 교회의 교회관은 개신교의 그것에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2바티칸 공회에서도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 교회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기되지 않고 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내지 사귐(communicio sanctorum)인가, 아니면 교직기구(Hierarchie)인가? 교회의 현실적 주체는 교인들인가, 아니면 교직자들인가? 교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가, 아니면 교인들이 없어도 교직자가 있으면 이미 교회가 있는가? 이 문제는 세계교회의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조직신학 교수

에큐메니칼 대회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¹⁾

이 논문에서 우리는 두 교회의 교회관을 비교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관이 보다 성서적으로 타당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카톨릭 교회의 교회관

종교개혁 이전까지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된 교리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신학적 도전으로 인하여, 그리고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기독교 공동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라 주장하는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여,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성찰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 교리는 카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졌던 트리엔트 공회와 제1차 바티칸 공회(1870)와 제2차 바티칸 공회(1964)의 문헌에서 제시된다. 이 문헌에 나타나는 카톨릭 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카톨릭 교회의 입장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서로 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사귐이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나 사귐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신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집합체요 사귐인 동시에, 신자들 위에 있고 그들 이전에 세워진 제도적 기구 내지 교직기구이다. 이 기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달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원을 중재하는 매개체이다. 이 매개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현존하며 그의 공동체를 다스린다.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변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다. 최근의 카톨릭 교회의 신학에서 교회는 “원성례전(Ursakrament)라 불리우기도 하는데,²⁾” 이것은 구

1)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교단들의 대회를 쉽게 소개하는 문헌으로 A. Birmèle / Th. Auster, Allein seligmachend? Das Thema Kirche im Gespräch der Kirchen, 1988.

2) 이에 관하여 O. Sammelroch, *Die Kirche als Ursakrament*, 3. Aufl. 1963; K. Rahner, *Kirche und Sakrament*(1960), *Ges. Schriften VII*, 1967, S. 337~349. 몰트만은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 J.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1975, S. 224 ff.

원을 중재하는 교직기구로서의 교회가 성도의 사귐보다 앞선다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재하는 교회의 기능은 1. 성례전을 통하여 수행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전을 집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재한다. 교회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적 기관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재하는 교회의 기능은 2. 教理的 가르침을 통하여 수행된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들이 교회에 맡겨져 있다. 교회는 이 진리들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친다. 평신도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곧 교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재하는 교회의 기능은 3. 교인들의 공동체의 삶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조정하며 카톨릭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한계를 명시하는 법적 통치를 통하여 수행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계명과 가르침을 교인들이 위반할 때,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교회의 법적 기능은 교회의 가르침을 거역한 사람들의 고해성사와 사면을 통하여 수행되기도 하지만, 사면을 거절하거나 성례전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카톨릭 교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원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 어머니 되신 교회를 갖지 않은 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Habere non potest Deum patrem, qui ecclesiam non habet matrem, 치프리안). 그러나 오늘날 많은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러한 엄격한 입장을 수정하고 교회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카톨릭 교회에 의하면 교직기구(Amt)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교직기구 안에 계신다. 그는 먼저 그가 부르신 사도들에게 교직기구를 맡기셨다. 사도들을 통하여 이 기구는 최초의 주교에게 전수되었으며, 선임주교의 안수를 통하여 서품을 받은 후임주교들에게 계승된다. 이미 주교로 서품을 받은 주교에 의해서만 사제가 임직되며, 사제는 주교가 베풀는 안수를 통하여 교회의 교직기구에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후임 교직자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직 서품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권위가 전승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계승을 말하며,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도적 교회의 가장 본질적

요소를 형성한다.

교회의 교직기구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세 계급으로 구성되며, 성례권(Weihegewalt)과 사법권(Jurisdiktionsgewalt)과 교리권(Lehrgewalt)을 가진다. 성례권은 충만한 구원의 효력을 가진 성례전 혹은 성사(聖事)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서품을 받은 주교와 사제에게만 속한다. 서품을 받은 주교나 사제 없이 성례는 집례될 수 없다. 평신도가 집례하는 긴급세례는 예외에 속한다. 사법권은 교회의 제반 법을 제정하고 교회의 삶을 통제하며 교회의 신적 명령에 대한 반대나 위반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교황과 주교에게만 속하며, 재판의 권한은 사제에게도 있다. 교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보다 더 높은 성직기관에 속한다. 교리권은 교인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진리를 곧 교리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이 권한은 주교단에 의하여 관장된다. 각 사제는 그의 선포가 주교단이 발표하는 이론과 일치하는 한에서 가르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교리권에 있어서 가장 큰 구속력을 가진 것은 카톨릭 교회 전체의 공회(Konzil)이다.

교회의 이 모든 권한은 로마 주교의 “베드로 직분”(Petrusamt)에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 로마의 주교 곧 교황은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제1차 바티칸 공회가 선포한 교리에 의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계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신앙에 관한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교리로 선포할 때,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³⁾ 교황무오설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교단의 회의도 교리를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리는 교황이 동의할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교황은 공회의 소집과 공회의 동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ex sese) 교리를 선포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권한들은 교황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교회의 통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최고의 권한을 가진 교황이 대변하는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교사이다. 교황의 절대적 권한의 근거는 마태복음 16:18에 기록된 그

3) 제1차 바티칸 공회는 교황무오설을 다음과 같이 말함: “로마의 주교가 최고의 교리적 권한으로 신앙이나 윤리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전 교회가 고수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거룩한 베드로 안에서 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의지를 근거로 무오설(Unfehlbarkeit)을 가지며……”: H. W. Krumwiede u. a.(Hrsg.), Kirchen 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 IV/1, 1979, S. 255에서 인용함

리스도의 말씀에 있다：“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로마교회의 최초의 주교였다. 따라서 교회의 사도계승은 베드로에게서 출발하여 그의 뒤를 계승하는 주교들과 사제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것은 주교와 사제의 서품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1964년의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론의 문제였다.⁴⁾ 이 공회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 교회관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교회를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여하는 교직기구로 파악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의 대변자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 공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새로운 면을 보여 준다：첫째, 교회를 단순히 교직자들의 교직기구로 보지 않고 교직자와 평신도의 사귐으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 평신도는 예배에 있어서 사제가 그들을 위하여 집례하는 성찬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여 기도와 내적 헌신을 통하여 성찬의 사건에 참여하는 적극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교회는 평신도 위에 있는 지배체제적 기관이라는 전통적 교회관이 부인되지는 않으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귐(Gemeinschaft)이요, 교회의 교직기구(Amt)는 이 사귐을 위한 봉사라고 보는 점이다. 또한 교황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홀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교들과의 사귐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셋째, 로마로부터 분리된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 교회들 안에도 기독교 신앙과 경건의 본질적 요소들이 있다. 카톨릭 교회가 성례를 통하여 중재하는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독교 교회의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받는 것과 함께 언젠가 그들이 카톨릭 교회로 돌아 오리라는 희망을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표명한다.

4) 제2차 바티칸 공회에 관하여 C. Andresen(Hrsg.), *Handbuch der Dogmen- und Theologiegeschichte III: Die Lehrentwicklung im Rahmen der Ökumenität*, 1984, S. 357~379. 교회론은 “die tragende Mitte des Konzilsgeschehens” 였다 : *Ibid.*, S. 363.

그러나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Ubi priester est, ibi est ecclesia)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포기되지 않는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평신도로부터 구분되며 평신도 위에 있는 특별 사제직을 여전히 주장하기 때문이다：사제와 평신도를 포괄하는 “보편 사제직”(sacerdotium universale) 혹은 “공동의 사제직”(sacerdotium commune)으로부터 “사목적 내지 지배체제적 사제직”(sacerdotium ministriale seu hierarchicum)이 구분된다. 사목적 내지 지배체제적 사제직은 사제들과 평신도를 포괄하는 “공동의 사제직”으로부터 그 등급에 있어서 구분될 뿐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essentia et non gradu tantum) 구분되는 동시에, 양자는 서로 보완적이다. 그러나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과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사목적 내지 지배체제적 사제직”에게만 속한다.⁵⁾ 1979년 모든 사제들에 대한 교황 요한 바울 2세의 서한은 지배체제적 교회 구조의 “사제화”(Sacerdotalisierung)를 다시 시도한다.⁶⁾

III. 개신교의 교회관

개신교의 전통적 입장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 제7장에 기록된 다음의 진술에 기초한다：“교회는 복음이 그 속에서 순수히 설교되며,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참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원문 : Est autem ecclesia congregatio sanctorum, in qua evangelium pure docetur et recte administrantur sacramenta. Et ad veram unitatem ecclesiae satis est consentire de doctrina evangelii et de administratione sacramentorum).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congregatio sanctorum)으로 정의된다.

5) 이에 관하여 B. Snella, Priester/Bischof, in: P. Eicher(Hrsg.), *Neues Handbuch theologischer Grundbegriffe* 4, 1991, S. 293.

6) Ibid., S. 294. 이에 관하여 P. Eicher, Priester und Laien – im Wesen verschieden? Zum lehramtlichen Ansatz der notwendigen kirchenreform, in: G. Denzler, Priester für heute, Antworten auf das Schreiben Papst Johannes Paulus II. an die Priester, 1980, S. 34~50.

이 정의는 루터로부터 유래한다. 루터에 의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제도(Insti-tution)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Kirche”라는 독일어는 교회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교회는 그의 본질에 있어서 공동체(Gemeinde)이다.⁷⁾ 그것은 성도들의 사귐(communio sanctorum)이다. 여기서 “communio”는 모임, 會(congregatio) 혹은 공동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귐 내지 교통(communicare)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sanctorum communicatio) 내지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communio electorum)으로 이해한다.⁸⁾ 교회는 신도들 밖에, 신도들 위에 있는 법적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의무는 서로 돋고 봉사하는 일이다.⁹⁾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근거하여 개신교는 교회를 철저히 성도들의 사귐(communio sanctorum) 혹은 공동체로 이해한다. 그것은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을 통하여 모인 신자들 자신을 말한다. 이 공동체 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이며 통치자이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중재하는 것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교직 기구 내지 제도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복음에 일치하여 베풀어지는 성례전이다. 복음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중재된다.

물론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은 교직자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그러나 교직자들은 주체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 직책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공동체의 불리움을 받았으며, 이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일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의 주체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직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으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congregatio fidelium) 내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생성

7) P. Althaus,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4. Aufl. 1975, S. 251

8) 이에 관하여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V /2*, Aufl. 1964, S. 3

9) F. Wendel, *Calvin, Ursprung und Entwicklung seiner Theologie*, 1968, S. 261.

되고 유지되고 개신되는 것이지, 교직자들의 교직기구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은 교직자의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다. 교직자의 선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오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성례전 안에서 활동한다.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creatura verbi)이다. “교회는 장소나 사람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성직자들이 있다 해도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 그 깊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¹⁰⁾

개신교는 교직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에 의하면 교회의 교직기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신적질서(ius divinum)가 아니라 인간적 질서(ius humanum)이다. 교회의 참된 통일성은 교황을 머리로 가진 교직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에 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와 제도는 교회가 처한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교회법, 예배의식, 축제, 금식 등 교회의 질서와 제도는 필요하지만, 구원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형식들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교직 기구(Amt)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교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교리와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를 전혀 범하지 않는 교직기구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개신교의 모든 교파는 의견을 일치한다. 주교의 말씀과 가르침도 복음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직자들의 특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문제이다. 교부들의 가르침과 공회의 결정들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교직자를 중심으로 가진 제도적 권위 때문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교직기구 위에 있다. 선포되며 성령을 통하여 밝혀지는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리므로 개신교는 카톨릭 교회의 교직기구의 개념과 사도계승을 반대한다.

10) Luther, WA 10, 1, 424.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제2판 1972, p. 216에서 인용함

주교가 사제 서품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하여 사도성(使徒性)이 자동적으로 계승되며 이를 통하여 교직기구가 전승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교직자들의 교직기구에 반하여 루터는 만인 사제적 혹은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한다. 교회의 모든 신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직 곧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말씀의 전달은 성직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일이다. 그것은 각 신자들을 통하여 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형제들 사이의 위로(mutua consolatio fratrum)를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사제들”이다(벧전 2:9).¹¹⁾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기구가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직기구는 사도계승을 통하여 교직자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가진 법적 기관 혹은 제도(Institution)가 아니라, 교회의 삶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봉사기관(ministrium)이다. 이 봉사의 직분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자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는 데에 있다.

초기 개혁교회 신학은 목사, 교사, 집사, 장로의 네 가지 직분을 제시한다. 루터교회의 신앙고백들과 교회법에 의하면 이 직분들은 하나의 교직에 속한다. 모든 직분들은 한 교직의 특별한 기능들에 불과하다. 공적으로 임명된 교직자의 교직은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데에 있다.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제14장에 의하면, 공적 예배에 있어서 설교와 성례전의 집행은 공적으로 임명된 교직자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교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개신교 교단들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교직자의 직분은 본래 교회의 회중 전체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직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직자라는 특수한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교직자의 직분은 회중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진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교직을 가리켜 “봉사”(ministerium)라고 말할 때 구체적인 질서와 형태는 교회의 회중에서 맡겨진 봉사기관(Dienst)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회중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직기구(Amt)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신교의 교단들은 입장은 달리하고 있다.

11) 루터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통일한 권한’을 가진다”: Luther, WA 6, 407. H. Küng, *Strukturen der Kirche*, 1987, S. 117에서 인용함.

IV. 신약성서에 있어서 공동체의 질서 —카리스마적 공동체—

본래 신약성서에는 단 하나의 완결된 교회 질서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공동체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근거하며, 은사는 봉사를 목적으로 삼는다. 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에 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벧전 4:10)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종류는 위로, 권면, 믿음, 지혜로운 말, 영분별, 환상, 방언 등 하나님의 선사하신 사적 은사들을 말하며, 둘째 종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공적 기능들, 예를 들어 사도, 예언자, 교사, 복음 전도자, 집사, 감독 등을 말한다. 전자를 가리켜 사적 은사들이라 한다면, 후자를 가리켜 공적 은사라 말할 수 있다. 공적 은사들 가운데 신약성서는 화해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중요시한다. (고후 5:18 이하, 행 6:4 참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직분이요(롬 11:13, 고후 3:3, 4:1, 6:3 이하, 11:8, 23, 행 1:17, 25, 20:24, 21:19, 딤전 1:12 참조),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이다(고전 12:28). 최초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최초의 공동체는 이러한 은사들을 받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형제들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사목과 공동체 치리의 은사를 중요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바울에 의하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은사들은 무질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은사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은사들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공동체는 “지도자들”(πρωτάρευος =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살전 5 : 12)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공동체를 돌보며 치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서로 돋는 것”(αναλύσεις), “다스리는 것”(κυβερνήσεις)이란 명칭으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명칭이 특별한 인물을 가르키는 공적 칭호로 발전된 것은 후대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

공동체의 사목과 치리를 담당하는 공적 칭호 가운데 1. 감독 및 집사의 직분과 2. 장로의 직분이 신약성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

1) “감독”(ἐπίκοον, one who watches over, an overseer, guardian)이란 말은 본래 세속적인 용어로서 국가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관을 말한다. 신약 성서에서 이 말은 그리스 지역의 공동체에서만 사용되는데, 이 지역의 공동체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사용되던 이 칭호를 받아들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외에 이 칭호는 신약성서에서 단지 다섯 번 사용된다(벧전 2 : 25, 빌 1 : 1, 행 20 : 28, 딥전 3 : 2, 딜 1 : 7). 그러나 감독의 기능이 무엇인지 신약성서는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집사”(δάκονος, servant, waiting man, deacon)에 대한 가장 오래 된 증언은 빌립보서 1 : 1에 나타나는데, 이 직분도 감독의 직분과 같이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직분의 기능은 주로 감독을 보조하여 공동체의 재반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었다.¹²⁾

2) 사도행전 20 : 20~35에서 장로의 직분은 공동체를 치리하며 이단설에 대하여 공동체를 지켜야 할 목자의 직분으로 묘사된다. 디모데 전서 5 : 17에서 장로(πρεσβύτερος)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의 직분도 가진다. 베드로 전서 5 : 2에서 장로는 목자의 사명과 공동체 치리의 사명을 가진다. 야고보서는 감독과 집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장로에 대하여 말하는데, 장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며 병자에게 기름을 빨라 줄 수 있다(5 : 14). 여기서 장로의 기능은 감독의 기능과 거의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¹³⁾

그런데 감독과 집사, 장로의 직분이 특정한 교직자를 통하여 법적으로 임직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신약성서에 발견할 수 없다. 각 공동체는 자신의

12) H. Küng, *Die Kirche*, 3. Aufl. 1985, S. 471~473 참조

13) Ibid., S. 477~478 참조

필요에 따라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직분을 받은 자들을 세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임직(任職)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심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다. 법적 임직을 받은 특별한 계급이 직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각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가 직분의 권위를 세운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명령과 복종의 원리에 입각한 지배체제를 그의 질서로 갖지 않고, 서로 자기를 낮추며 공동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는 질서를 가진다. 여기에는 무질서 대신에 질서가 있으며, 갈등 대신에 평화가 있다.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복종이 그 안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지 결코 계급질서에 따른 복종이 아니다. 이 공동체는 “형제들의 공동체”요 “친구들의 사귐”이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지배체제적 감독제도(Episkopat)를 우리는 바울의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없다. 감독에 대하여 말하는 빌립보서 1 : 1은 다수의 감독들에 대하여 말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한 계급으로서의 장로제도도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없다. 사도행전과 목회서신 외의 바울서신에서 장로라는 단어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신약성서에서 감독제도 장로제도도 공동체의 본래적 질서로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독제도와 장로제도는 하나로 결합되는 현상이 신약성서에 나타난다. 그 이유는 두 제도의 기능이 비슷하였던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 장로가 감독이라 불리우기도 한다(행 20 : 17, 28). 바울의 공동체가 흔히 사용하였던 감독이란 칭호를(빌 1 : 1 참조) 누가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이방 공동체의 감독과 유대 공동체의 장로를 동일시하고 그리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꾀하며 이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도서 1 : 7에서 장로의 개념은 감독이란 단어로 대체된다. 클레멘스 제1서신에서도 동일한 인물이 장로로 불리우는 동시에 감독이라 불리운다.¹⁴⁾

그러나 교회가 점점 더 제도화 되면서 장로제도는 사라지고 감독제도가 교회의 유일한 제도로 등장한다.¹⁵⁾ 본래 바울의 공동체에서는 물론 안디옥과 예

14) H. Küng, *Die Kirche*, S. 481.

15) 이 현상은 목회서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목회서신에서 교회의 성령적 차원은 약화되고 “제도적 현상”(institutional appearance)이 강조된다.

루살렘의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 인물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교사들, 또한 다른 은사들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세대가 지나고 디도,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들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독들과 집사들은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행정적인, 예를 들어 재정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주후 2세기 말 경 예언자들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고 3세기에는 자유로운 교사들도 사라짐으로써, 공동체의 치리와 예배와 가르치는 일이 점점 더 감독들 내지 장로—감독들과 집사들의 과제가 되었다. 결국 감독들은 사도들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벌써 목회서신과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다(딤전 3:1~7, 5:17, 벤전 5:1~4 참조). 디도서 1:7에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불리운다. 이리하여 신자들의 공동체, 은사들의 공동체, 자발적인 봉사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장로—감독들의 계층이 형성되며, 이 계층이 공동체의 유일한 인도자 계급으로 발전한다. 교직자(Klerus)와 평신도(Laie)의 분리가 여기서 시작된다.

신약성서의 최초의 문헌들과 신약성서 외의 다른 문헌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다수의 감독들 내지 장로들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수의 감독들은 단 한 사람의 감독으로 집약되기 시작한다. 앤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에 의하면 감독은 단 한 명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하나의 성찬, 주님의 한 름,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제단, 따라서 장로직과…… 집사들을 거느린 하나의 주교”.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주교—장로직—집사의 세 계급으로 구성된 지배체제를 발견하는데, 이 지배체제가 결국 교회의 구조를 형성한다. 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다수의 감독들 내지 장로들의 협의체 대신에 장로들과 집사들을 자기 아래에 가진 군주체제적 감독제도가 등장한다. 이제 감독은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신자들을 교회에 받아줄 수도 있고 추방할 수도 있는 권한과,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기독교가 점점 더 넓게 전파되면서 많은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교구의 주교직이 생성된다. 주교(Bischof)는 성서적 개념과는 반대로 보편적 사제(sacerdos), 최고의 사제(summus sacerdos) 혹은 대제사장 혹은 주교(pontifex)라고 불리우며, 구약성서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이해된다. 주후 4세기 중엽부터 그는 특별한 법복(法服)을 입는다. 기독교화된 비잔틴 제국에서 그는 촛불, 향, 보좌, 특별한 신발, 수대(手帶, Manipel), 권위가 있어 보이는 특별한 망토 등 그 당시 황제나 최고의 공직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물론 황제 버금가는 위치와 칭호를 얻는다. 사도계승은 이러한 주교직의 승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리하여 하나의 완벽한 지배체제(Hierarchie)가 성립된다. 교회의 생명은 사도계승을 통하여 이어지는 교직기구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최초의 카리스마적 공동체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직기구로서의 공동체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¹⁶⁾

1. 두 공동체는 사도들의 원초적 증언과 원초적 파송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들은 사도들이 원초적으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근거한다. 그들은 사도들의 믿음과 고백과 봉사와 삶에 있어서 사도들의 뒤를 따른다.

2. 두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사제직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 모든 신자들은 중재자 없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세속의 생활 속에서 그들 자신을 영적 제물로 바쳐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과 죄의 용서를 집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동시에 세상 안으로 파송을 받는다는 확신에 있어서 두 공동체는 공통점을 가진다.

3. 두 공동체는 그들의 봉사를 카리스마적 봉사로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 바울의 공동체가 기본 특징으로 가진 자유로운 카리스마적 봉사는 물론, 팔레스틴 공동체가 기본 특징으로 가진 인간을 통한 특별한 파송도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자유로운 카리스마는 물론 특별한 파송도 부활한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자유에 근거한다.

16) 아래의 내용에 관하여 H. Küng, Die Kirche, S. 495~497.

4. 모든 신자들의 자유로운 카리스마적 봉사는 물론, 특별한 파송을 통하여 성립되는 카리스마적 봉사도 모든 신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두 공동체는 공통성을 가진다. 특별한 파송으로 말미암은 봉사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섬기지 않고 지배하고자 하며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직자들도 있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질서에 빠지게 하는 카리스마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와 고린도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장을 나누며 함께 살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후기의 교회들은 바울 자신의 서신들은 물론 유사 바울서신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본래 바울은 교회를 교직기구로 이해하지 않고 카리스마적 공동체, 곧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질서 가운데서 자유롭게 전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공동체로 이해한다.¹⁷⁾ 바울 자신의 서신들 곧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있어서 교회는 교직 기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며,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유지된다. “1. 바울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군주적 감독직(monarchischer Episkopat)도 확정될 수 없다. 바울서신들 중 감독직에 대한 유일한 구절은(빌 1:1) 복수의 감독들에 대하여 말한다(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서신은 다르다). 2. 바울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장로직도 확정될 수 없다. 장로 혹은 장로직은 바울서신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사도행전과 목회서신에서는 다르다). 3. 바울의 공동체에서 어떠한 교직자 임직식(Ordination)도 확정될 수 없다. 바울서신들은(임직식에서의, 필자) 안수에 대하여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사도행전과 목회서신에서는 다르다).”¹⁸⁾

17) 바울의 교회관에 관하여 E. Brunner, *Dogmatik III*, 2. Aufl. 1964, S. 57~66; L. Cerfaux,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Saint Paul*, 1959, p. 95~114; G. Eichholz, *Die Theologie des Paulus im Umriss*, S. 273~287; R. Schnackenburg,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 77~85; A. Wilkenhauser, *Die Kirche als der mystische Leib Christi nach dem Apostel Paulus*, 2nd ed. 1940

18) H. Küng, *Die Kirche*, S. 475.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케제만 교수에 의하면, 신약성서는 교직기구로 표현될 수 있는 기술적 개념을 알지 못한다.¹⁹⁾ *Leitourgeia(λειτουργία, the service or ministry of priests, 오늘 우리 말로 liturgy), timē(τιμή, authority), arxē(ἀρχή, origin, sovereignty)*로 표현될 수 있는 교직기구의 개념을 신약성서는 피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지배관계”(Herrschaftsverhältnis)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울신학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개념은 “카리스마” 곧 은사라는 개념이다. “은사를 가진다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그리스도의, 필자) 삶과 은혜와 영에 참여함을 뜻한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각 사람의 특정한 참여이고 주님에의 이 특수한 참여는 특정한 봉사와 특정한 부르심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이다.” 바울에 의하면, 교직자들은 물론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에 참여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Charismatiker)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Begnadeter)인 동시에 “섬기는 사람”(Dienender)이다.²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교회는 교인들 위에, 그들 이전에 있는 교직기구가 아니라, “은사들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통일체”(Einheit der Charismen und Charismatiker)이다.²¹⁾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제의적 대리행위의 거룩한 행위, 유대교와 이방종교가 의미하는 거룩한 인물들, 다시 말하여 특정한 영역(temenos)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부여받은 것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 “제단의 거룩한 교직”이란 있을 수 없다.²²⁾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교주나 지배계급은 있을 수 없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성령은 종말에 올 새로운 시대의 은사이다(사 44:3, 63:14, 갤 36:27, 속 4:6). 종말이 오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욜 2:28). 특별히 임명된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백

이와 같은 “성령론적 교회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관은 목회서신의 교직기구로서의 교회관과 매우 다르다. 이러한 교회론적 차이는 물론 문체와 전체 사고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목회서신은 바울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철가라고 신약학자들은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E. Schweizer, *Gemeinde und Gemeindeordnung im Neuen Testament*, 1959, S. 67~79.

19) E. Käsemann, *Amt und Gemeinde im Neuen Testament*, in: *Exegetische Versuche und Besinnungen I*, 6. Aufl. 1970, S. 109.

20) H. Küng, *Die Kirche*, S. 117.

21) *Ibid.*, S. 115

22) *Ibid.*, S. 121.

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소생시키며(겔 37장 참조)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것이다. 교직기구에 속한 교직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가 “성령의 피조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불리움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未來의 現在 속에서 살고 이 미래를 증언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기독교의 공동체는 카리스마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에서는 교직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에클레시아를 섬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Pneumatiker)이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는 성령의 은사들과 힘들로부터 산다. 각 사람은 그가 받은 은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主)를 섬긴다. 교직자들의 지배체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²³⁾

V.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본래의 교회는 교직기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절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사도신경에 따라 “성도의 공동체” 혹은 “성도의 사귐”(communio sanctorum)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신약성서에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사귐)”(고전 1:9), “성령의 친교”(고후 13:13),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은 친교”(요일 1:3)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 그의 아들 예수와의 친교, 성령과의 친교 곧 사귐은 신자들 사이의 친교를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가지는 친교에 대하여 말한다(고전 10:15~16).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며 그의 몸을 나누어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몸”이다. 그들은 한 공동체(communio)를 형성하며 한 공동체에 속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성도의 공동체” 혹은 “성도의 사귐(교제)”이라 부를 수 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한 교제”를 나눈다(몬 1:6)

교회를 “성도의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앞서 고찰한 바 신약성서의 “카리스마적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근거를 먼저 예수의 삶 속에서 발견한다. 역사의 예수는 사제라고 하는 특별한 교직계급을 세우지 않는다. 물론 그는 제자들을 세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사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기능은 종교적 제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익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다. 예수가 제자들을 세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전통 안에서 제의를 담당하는 사제계급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역사의 예수는 사제계급을 세우지 않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공동체적 삶을 가진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며,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들린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당한 사람들과 사귐을 가진다. 이 공동체는 사제계급으로 구성된 교직기구가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과 예수의 사귐 곧 communio 였다.²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범복을 입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로 나타나지 않고, 철저히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로 나타난다.

“성도의 공동체”라는 교회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근거될 수도 있다 :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와 다른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둔 외로운 유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있는 관계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이다. 그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一體)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며, 구분되는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삼위일체 안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명령과 복종의 지배체제가 없다. 그 속에는 위 아래가 없다. 그들은 한 몸 곧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평등하며 서로 섬긴다. 그것은 명령과 복종, 지배와 피지배로 이루어지는 지배체제(Hierarchie)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들의 사귐 내지 공동체(communio)라 말할 수 있다.²⁵⁾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24) 이와 관련하여 E. Brunner, *Dogmatik III*, S. 38: 예수 그리스도는 “Institution”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사랑이 그 속에서 다스리는 Gemeinschaft(사귐, 친교)를 원하신다.”

25) 이에 관하여 김균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1990, p. 130 ff

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성도들 이전에, 성도들 위에 있는 사제계급의 교직기구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지만 한 몸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지만 서로 구분되는 지체들의 공동체 곧 “communio sanctorum”이다.

또한 “성도의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사제적 혹은 만인사제직으로부터 근거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사제들”이라면, 교회는 소위 성직을 맡은 사람들의 계급 내지 그들로 구성된 교직기구가 아니라, 모든 “사제들”的 사귐 곧 “성도의 사귐” 내지 “성도의 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다.

“Communio sanctorum”이란 개념은 본래 주후 4세기 말 경 세르비아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갈리아 지방에서 유포되었고 고대 로마 공동체의 세례식 신앙고백에 첨가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사도신경에 첨가되었다.²⁶⁾ 이 개념은 크게 나누어 1. 인격적으로 해석되어 “거룩한 사람들(sancti)의 사귐”을 뜻할 수도 있고, 2. 성례전적으로 해석되어 “거룩한 사람들(sancta, 곧 성례전)의 사귐”을 뜻할 수도 있다.

이 개념과 관련된 초기의 문헌에 의하면, 이 개념은 인격적 의미를 가진다.²⁷⁾ 그리하여 레메지아나의 니케타스(Niketas von Remesiana, 주후 약 400년 경)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세계의 태초부터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으며 미래에 살 모든 의로운 자들이 교회를 형성한다…….” 그러나 중세기 카톨릭 교회는 이 개념을 성례전적으로 해석하여 “거룩한 사물들”(sancta) 곧 성례전에의 참여로 파악하였고, 이것을 인격적 해석과 결합시켰다. 이리하여 “communio sanctorum”은 공동체 안에 지금 살아 있는 성도들의 사귐은 물론 과거에 살았던 성인들과 순교자들과의 보편적 사귐을 뜻하는 동시에, 성례전에의 참여를 뜻하게 되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이러한 해석은 죽은 성인들의 승배 및 신비적 연합과 결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념을 인격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지금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사귐으로 축소시켰다. 이리하여 그들은

“communio sanctorum”을 “congregatio sanctorum”(성도들의 회중), “congregatio fidelium”(신자들의 회중)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²⁸⁾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양자를 결합시킬 때, “communio sanctorum”을 보다 더 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먼저 이 개념은 인격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지금 땅 위에 살고 있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을 뜻하는 동시에, 과거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뜻한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와 미래의 연관 속에서 산다. 이 연관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과거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순교자들과의 사귐을 고백함으로써 교회는 순교자들의 고난을 회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우주적 사귐의 지평을 가지게 된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죽은 성인들과의 신비적 연합에 대하여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이 개념은 성례전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하여 그것은 “성례전에의 참여”로 이해될 수 있다. 성례전에의 참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의 참여를 뜻하며, 성례전 안에 임재하는 그리스도 자신에의 참여를 뜻한다. “Communio sanctorum”은 성례전을 통한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미래에 있을 사람들의 사귐을 뜻하는 동시에, 성례전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며 그의 구원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그러나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진 하나님의 폐쇄된 집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확장시키는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동체가 사귐을 가지는 예수는 그의 말씀과 행위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예수와 사귐을 가지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 자신속에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지향할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가 선포하였던 그 사람들

26) W. Pannenberg, *Das Glaubensbekenntnis, ausgelegt und verantwortet vor den Fragen der Gegenwart*, 1972, S. 155.

27) 이에 관하여 J. N. D. Kelly, *Altchristliche Glaubensbekenntnis*, 3. Aufl. 1972, S. 382 ff.; E. Schlink, *Ökumenische Dogmatik*, 1983, S. 589에서 인용함.

28) 오늘날 카톨릭 신학자 가운데에도 “communio-Ekklesiologie” 곧 교회를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사귐”(communio fidelium)으로 보는 교회관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음 : W. Kasper, *Theologie und Kirche*, 1987, S. 272 ff.

과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communio sanctorum”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사귐을 뜻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 곧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작은 형제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성례전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자신과 사귐을 가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작은 형제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세계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참으로 “communio sanctorum”일 것이다.

루터는 “communio sanctorum”을 소유의 공동체로 이해하여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며 다른 사람의 모든 소유는 자기의 것이요 아무에게도 자기의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²⁹⁾ 루터의 이러한 교회관은 사도행전 4:32~35에 나타나는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교회는 그가 속한 사회를 닮은 교회, 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것도 보여주지 않는 그 사회의 일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인가? 만일 교회가 이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Novum)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당하는 피조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탄식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얹어 먹으면서 그 속에 안주하는 또 하나의 종교적 집단이 될 것인가?

VI. “형제 자매의 공동체”, “친구들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내지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³⁰⁾라 말할 수 있다. 교직자는 물론 모든 성도가 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

이다. 그들은 한 아버지를 가지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막 3:35).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 이 공동체 안에서 참 선생 곧 지도자는 한 분 뿐이다. 어떠한 특정한 인물도 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지도 아래 있는 형제와 자매이다 : “너희의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뿐이고 너희는 모든 형제들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막 23:8~10). 형제 자매 사이에 특별한 지배계급 내지 특권계급이 있을 수 없다.

이 공동체는 형제들만 모인 교회 곧 남자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매들의 공동체 곧 여자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건강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병자들과 불구자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이다.

또한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친구들의 사귐” 내지 “친구들의 공동체”(Gemeinschaft der Freunde)라 말할 수 있다. 역사의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마 11:19, 뉘 7:34). 그는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른다(요 11:11). 그는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 부른다(눅 12:4).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친구”라 부르겠다고 약속한다(요 15:14). 교직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예수의 친구이다. 그들 모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명령자와 복종자, 종교적 특권층과 비특권층의 관계에 있지 않고 “친구의 관계”에 있다. 친구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명령과 복종이 있을 수 없다. 친구사이에는 평등과 신뢰와 지배가 있다. 교회는 신자들 위에 있는 교직기구가 아니라 평등과 신뢰와 자유가 있는 친구들의 공동체이다.³¹⁾

29) WA 7, 219, 1, 11. P. Althaus, *Theologie Martin Luthers*, S. 262에서 인용함.

30) 이 개념은 바르텐 신학선언 제3조에서 유래함. 이와 관련하여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V/2, S. 718은 교회의 형성을 “형제관계에로의 결합”으로 파악함.

31) J.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S. 343: 친구의 개념은 형제의 개념에 비하여 자유를 강조하며, 친구관계의 개념은 “해방하는 하나님 관계와 자유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귐을 표현한다.”